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삶, 그것은 수행

강인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음 마니반메를 읊마니반메를 읊마니반메를. 어디에선가 한낱 들은 소리, 귀에 익숙한 소리인 독경 소리를 듣다 보면 아련하게 이끌리는 무엇인가 가슴속에 메아리 친다. 요즘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독경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태(胎) 속에서, 아니 그 이전의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명 딸이었던 어머니는 2대 독자인 아버지께 시집오셔서 딸 셋을 낳은 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기 위해, 아니 당신 스스로 불교경전을 공부하며 한글을 깨치시려고 가까운 사찰에 다니셨다. 그러던 중 원하던 아들을 낳으셨지만 그 아이가 백일도 되기 전에 홀연히 부처님 나라로 떠나셨다. 세상을 겨우 30여 년 사시고 가시다니... 내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런 어머니의 정성과 끝없는 이끌림이 마음속 한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 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인도로 이 교회 저 교회 무전기도 따라다녔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는 '이것은 아닌데, 내 갈 길은 다른 데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삶에는 철학과 목표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고 지내던 불교를 다시 찾게 된 것이 재가 수행 모임인 '부처님마을'에서였다. 부처님마을은 불교학살에서 활동하던 일부 사람들이 학교 시절 열심히 하던 포교와 수행을 계속 하자고 결성한 모임이다. 회원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중산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사찰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가족단위 여름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같은 뜻을 지닌 법우들과 함께 절하며 참선했던 시간이 인상에 남았다. 또 체계적인 불교 교리를 배운 것이나 스님들의 수행 경험담을 들은 것도 수행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연례행사처럼 한 해 두 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다.

이래의 소중한 경험들이 쌓이던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후회없이 사는 방법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곧 태어난 아이들, 나 하나만 보고 시집 온 아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 등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마을' 지역모임을 결성하고 가정 법회를 개최하며 이웃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기도가 관음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관세음보살님, 어머니가 그리워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했다. 거실에도가도 관세음보살을 탁본한 사진을 구해 모셔놓고 조석으로 절을 올렸다.

나는 매일 출근하기전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까" "나의 행복으로는 아쉬워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하루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고하며 참회하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었다. 이러한 일을 15년동안 반복하다보니 저절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되었고 그

러다보니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나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요즘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되어 감사합니다' 를 수없이 되뇌인다. 그러면 가끔씩 꿈에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며 어릴 적 살던 고향집과 산과 들만 등이 보이곤 한다.

“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에
미약하나마 용기와 힘을 주는게
얼마나 보람있고 정법을 실천...”

아침에는 예불을 올리고 <천수경>을 독송한다. 또 시간이 없으면 아침 운동 시간을 이용해 집 근처 약수터에서 입을 깨끗이 씻고 물 한모금 마신 후 예불과 천수경을 올린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절에서 예불을 올리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새벽 일찍 관악산 연주암에 올라 예불을 드린다. 기도가 끝나면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 달 계획을 구상하고 직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출장이나 집안 행사 등으로 몇 번씩 거르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허전한 마음이 들 정도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직장내

10년동안 소년원 아이들과 아픔을 나누며 살아왔다

불교 수행모임을 결성해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성지 순례까지 주선하고 있다. 처음엔 몇 명 안되던 회원들이 이제는 제법 많아져 서로 만나 얘기할 때도 경전이나 사찰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곤 한다.

가정에서는 지중한 인연을 통해 내게 온 두 딸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보시행을 베풀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발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소년원 법회에도 참석하게 해 피아노 반주를 하며 소년원 언니들과 함께 찬불가를 부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또 이렇게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약한 힘이나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부처님 정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인가도 설명해 주곤 한다.

그래서인지 두 아이들은 요즘 청소년 담지 않게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 또 열심히 독서하고 사고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잘 어울리고 친

고 노력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온 가족의 정성을 알았는지 경민이도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1학기 성적보다 2학기 성적이 조금 나아지고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험상 수행생을 둔 가정에서 기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로 목적을 바라는 기도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만일 '성적을 올려달라' 든가 '일류대학에 가게 해달라' 고 기도하면 본인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돼 오히려 탈선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91년부터 재소자 청소년 교화 차원에서 소년원에서 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두 딸을 둔 아버지로써 소년 소녀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그들이 다니는 직업을 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다. 특히 수련 소년원이 안양 석수동에 신축 이전되면서 종교실을 배정받아 매주 일요일마다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그만 법당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년월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절도, 유해물 취급,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이곳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놀기 좋아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포교하기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몇배나 힘들다. 하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노라면 모두가 내 자식같아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든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화두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결손가정의 아이, 편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 할머니나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 부모가 있어도 대화를 거의 해본적이 없는 아이, 돈으로 모던 것을 해결하는 가정의 아이, 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 등 천차만별이었지만 공통된 현상은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이었다.

이들을 만나보니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나의 유년시절이 생각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원을 세워 기도했다.



그림 · 이준석

구에게 양보하는 이타행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학교 성적도 뛰어나 선생님은 물론 주변 이웃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해 부모로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는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앞두고는 온 가족이 모여 '경민이가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해 평소 몸이 불편한 스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픈 중생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온 정성을 모아 기도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아져 예전보다 더 화목해 졌다. 온 가족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공동으로 발원하는 행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합도 도모시켜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게됐다.

기도도 성적을 올리게 해달라는 내용보다는 "큰 딸 경민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합심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많아 공부와 성적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매주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소년원 아이들을 내 딸들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친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다. 또 그들이 부처님 법에 의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법당에 모실 관세음부처님을 전 남 나주에서 모셔와 법당을 꾸몄다.

아이들과 같이 법회 때마다 관음정근도 하고 듣는대로 찬불가 배우고, 108배 참회기도, 경전 퀴즈대회, 연등 만들기 및 반야심경 염송대회 등도 열어 부처님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요즘은 한 달에 두 번 밖에 소년원 선재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10년동안 열심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포교했다. 그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선재법당을 거쳐갔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

10년 동안 소년원 포교를 하면서 우리 가족도 사회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가족을 위해, 주변의 동료와 이웃을 위해, 온 우주의 생명체를 위해, 찬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끝없는 정진의 시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기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저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운명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흥화(興禍)의 역(厄)을 면(免)하고 전화(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어 없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2백일을 벗었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꿈종 통용)) (대용, 그 운명의 비법) (꿈풀이 실용이)
- 부록 (꿈은 부부궁합)

정현우 박사 지음/신국문 / 값 1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머리진평 신국문/해서 조영수 편저/값 30,000원
2. 21C 최신 우리말 대운 만세력 4x6배판/해서 조영수 편저/값 15,000원(대)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문/김백만 편저/값 12,000원(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문/양정민 김용식 저 /값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문/김백만 편저 /값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문/이신일전용일 권저 /값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문/양정민/송철순 지음 /값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신국문/양정민 이삼복 지음 /값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문/함봉철 지 /값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문/함봉철 지 /값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문/백광 지음 /값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문/양정민 이삼복 지음 /값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문/양정민 전삼백 지 /값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문/김용중 편저/값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문/양정민 김삼진 지 /값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실용이 대백과 신국문/정현우 지 /값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 921-8434 F. 929-3470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旺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지 있다
2. 길지(陽地)와 흉지(陰地)는 풍운(吉地)과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3. 나쁜 길(凶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무리는 땅에서 나온 석질(石物)의 연계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문 양정민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신혈을 쳐르고 준혈을 사고 준혈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양정민
값 40,000원

기적의 풀이

기적의 풀이

월척이지 않고 절대 숨차지 않으며, 3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는 절 수행 秘法書 -

정현우 박사 지음
값 6,500원

하루에 3천배씩 3년간 목숨을 담보한 절(拜) 수행결과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된 比丘 청정 스님의 절 수행 秘法과 생생한 수행 체험담이 담긴 이 책은 절을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과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로써, 불자들의 가슴에 신선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 할 것입니다.

500만배의 절 / 호수에 맞춰 절하는 법 / 절 수행에 열물 대입법 / 온몸에서 빠져 나간 악물 / 90세에 다시 찾는 젊음 / 절 수행으로 입장 소멸 / 카톨릭 신자의 절 수행 / 절 수행으로 당뇨병을 극복하다 외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절 수행 문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 참선캠프 범왕정사 수행원
☎(031)771-7745, 6736

붓다의 마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 갈매거리 406호
전화 (02) 722-0292, 722-0293 (팩스겸용)
E-mail : BDland@chollian.net

■ 불교대학,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